-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～3단지 3종 상향 촉구 결의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824호

2023. 1. 5.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. 3. 이재식 의원 외 17인 공동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3. 1. 4. 의회운영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9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2023년 1월 5일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정택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1988년 조성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는 총14개 단지 2만6천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목동 아파트 1～3단지만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 2종이고, 나머지는 3종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.

○ 서울시는 목동 아파트 1～3단지의 조건 없는 3종 상향을 즉각 실시해야 함.

3. 검토의견(전문위원 한동석)

○ 정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1～3종으로 세분하였음.

【1～3종 일반주거지역】

종 별	지정 목적	건폐율	용적률
1종	저층주택 중심 주거환경 조성	60%이하	100%이상 200%이하
2종	중층주택 중심 주거환경 조성	60%이하	100%이상 250%이하
3종	중·고층주택 중심 주거환경 조성	50%이하	100%이상 300%이하

○ 법에 따라 2004년 최초 종 분류 당시에 목동 1～3단지는 3종 요건에 해당하는 '13층 이상 건물 10% 이상'을 충족하고 있었으나(1단지 23.5%, 2단지 21.6%, 3단지 20%임.)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1～3단지만 2종으로 결정하였음.

○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'이번에 2종, 12층으로 하고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3종 상향 가능하죠?'라는 심의의원의 질의에 공무원은 '예 그렇습니다.'라고 답변한 기록이 남아 있음.

○ 또한 지난 2021년4월7일 서울특별시장 재·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현 시장은 '1·2·3단지 조건없는 3종 환원'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.

○ 이에, 양천구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서울특별시장에 2004년 최초 종 분류 당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,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3종 환원을 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보내려는 것임.

○ 「대한민국헌법」 제23조제1항 '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.', 제35조제3항 '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'라고 하여 재산권과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음.

○ 따라서 본 결의문 채택 및 서울시청 이송은 구민의 대의 기관인 양천구의회가 양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보고드림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**수정가결**

(재적의원 7명, 출석의원 4명,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~3단지 3종 상향[환원] 촉구 결의안 수정동의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~3단지 3종 상향[환원] 촉구 결의안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한다.

결의문의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~3단지 3종 상향[환원] 촉구 결의문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~3단지 3종 상향 촉구 결의문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~3단지 3종 상향[환원] 촉구 결의문	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~3단지 3종 상향 촉구 결의문